

일본	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	----------------

(2014년 8월 12일)/ 도쿄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검역)	☐ “한국산 축제품 미생물 검출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발생” -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미생물 규격기준 위반 (8.8, 후생노동성)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			
☐ 주요 내용			
☐ 8월8일 핸드캐리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국내 A사의 전복죽제품이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(레토르트 식품)에서 미생물 기준을 위반하였기에 통관보류중임을 통보			
- 레토르트 식품은 ‘발육가능성이 있는 미생물’ 이 음성으로 나와야 함			
품명	레토르트 식품(전복죽)	수입자	(주) 유리
신고량	8 C/T, 55.2kg	도착일자	'14년 7월 17일
위반총량	전량	신고일자	'14년 7월 17일
수출국	한국	검사일	'14년 7월 17일
☐ 지난 4월 캐나다 정부가 실시한 동(同)제조사의 축제품 리콜사태와 관련하여 일본검역소에서도 감시 강화 상태로 모니터링 검사(선통관 후 샘플검사)결과 검출된 것으로 판명			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			
☐ 일본 후생성은 해당 제조사의 축제품에 대한 수입을 잠정보류시킨 상태임으로 원인규명 될 때까지 관계 수출업체에서는 당분간 수출을 자제토록 전파 요망			
☐ 해당제품의 열처리 제조과정 등 원인규명 검증이 필요하며, 정규 수출선 이외의 병행 수입제품이 정상무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일본측과 향후 협의 필요			
☐ 발표 일자/ 출처 : 2014년 8월 8일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			

일본	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	----------------

(2014년 8월 12일)/ 도쿄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검역)	☐ “한국산 김치 통관 보류 및 해결” - 아플라톡신 검사 범위 확대에 따른 보류사안 발생 (8.1 후생노동성)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	
☐ 주요 내용 ☐ A사가 제조 수출한 김치가 아플라톡신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오사카 검역소로부터 검사 완료시까지 통관보류 발생 - 일본후생성은 고춧가루 등 아플라톡신 발생이 우려되는 성분이 포함된 김치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음(2012년 부터) ☐ 검역소 별로 지도요령에 차이가 있어 도쿄항의 경우 고춧가루 성분 5%이상 함유된 김치만 요구하나, 오사카 검역소의 경우 1%이상 함유된 제품까지 요구하고 있음 ※ 아플라톡신 명령검사 성분 : 넛츠류, 곡물, 향신료(고춧가루) - 상기 성분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년 1회 정도의 자주검사를 지도	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☐ 수입자인 B사에 의하면 고춧가루 원료 구매시 년2회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위생확보는 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☐ aT는 오사카 검역소에 업체 통관을 원만히 해줄 것을 요청하여 통관 해결. 주일대사관과 후생성 방문하여 업체 위생관리 현황과 검역소별 차등 검사 요구에 대해 이의 제기한 상황임 ☐ 사전확인제도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 업체는 위생확인이 후생성에 의해 이미 완료된 바 있으나 인증이후 국제적인 위생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요구에 대응이 필요함 - 향후 김치 수출업체는 아플라톡신에 대한 자주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관보류시 대처 필요	
☐ 기준 일자, 출처 : 2014년 8월 1일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	